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어떻게 승진(升進)할 수 있었을까? (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弟子)가 나에게 제공(提供)했던 사례(事例)로, 어떤 남자(男子)가 승진을 점(占)쳐서,
 신해월(辛亥月) 갑신일(甲申日)(순공(旬空): 오미(午未))에,
 택산함(澤山咸) 괘(卦)를 얻었다.

壬寅年 辛亥月 甲申日

八卦

澤山咸(兌金宮) 之 澤山咸(兌金宮)

應	父丁未 ^空		玄	父丁未 ^空		應	伏	父丁未 ^空
	閏蓋乙天			閏蓋乙天				閏蓋乙天
兄	丁酉		白	兄丁酉		伏	兄	丁酉
	馬災花			馬災花				馬災花
孫	丁亥		蛇	孫丁亥		伏	孫	丁亥
	地亡			地亡				地亡
世	兄丙申		勾	兄丙申		世	伏	父丁丑
	花劫地			花劫地				閏馬月乙花羊
官	丙午 ^空		朱	官丙午 ^空		伏	財	丁卯
	帳害鬼馬災			帳害鬼馬災				將害
父	丙辰		青	父丙辰		伏	官	丁巳
	閏花鞍蓋			閏花鞍蓋				帳馬花劫

卦身: 財寅

世身: 三爻

空亡: 午未

제자가 묻기를, 일반적(一般的)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판단 (判斷)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이 사람은 축월(丑月)에 승진했으니 어째서인가요?

승진은 관귀(官鬼)를 용신(用神)으로 삼는데, 관귀 오화(午火)가 월(月)이 극(剋)하고 일(日)이 방부(幫扶)하지 않으며 또 공망(空亡)이니 정확(正確)하게 승진으로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사례는 연(年)과 시진(時辰), 그리고 이 사람의 띠가 없어서 참고(參考)할 만한 요소(要素)가 부족(不足)하다. 그러나 이날이 갑신일은, 갑무경(甲戌庚牛羊)으로, 미토(未土)가 귀인(貴人)이 되는데, 관귀 오화

와 상합(相合)하고, 또한 세효(世爻)와 동궁(同宮)하니, 미토 공망이 축월에 이르러 충공(沖空)으로 실공(實空)하므로 축월에 승진하였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为什么能够升迁？（王虎应写）

这是徒弟提供的一个案例，男占升迁，于辛亥月甲申日（旬空：午未），得泽山咸。

玄武	父母未土"应
白虎	兄弟酉金'
螣蛇	子孙亥水'
勾陈	兄弟申金'世
朱雀 妻财卯木	官鬼午火"
青龙	父母辰土"

徒弟问，一般很难判断成升迁，但此人丑月升迁，为什么？
 升迁以官鬼为用神，官鬼午火月克，日不帮扶，又空亡，的确很难看出来升迁。
 此案例没有年和时辰，以及此人生肖，少了部分参考因素，但此日甲申，甲戌庚牛羊，未土为贵人，与官鬼午火相合，又与世爻同宫，未土空亡，到丑月冲空则实，故丑月升迁。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제5장 이름난 스승을 만나고, 북해(北海)에서 손을 잡고 선천(先天)을 전수(傳授)받다

만리로 돌아오는 길을 다 밟으니, 산하(山河)의 모진 풍파(風波)가 가슴속으로 걸어들어왔다. 소옹(邵雍)은 사방(四方)을 두루 겪고 천고(千古)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남김없이 바라본 뒤, 하락(河洛)의 옛길을 거쳐 공성(共城)으로 돌아왔다. 수년(數年) 동안의 먼 유람(遊覽)을 통해 그는 천지(天地)를 책(冊)으로 삼고 고금(古今)을 증거(證據)로 삼아, 서책(書冊)의 의리(義理)와 인간(人間) 세상사(世上事) 사이의 벽(壁)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가슴속에 배운 학문(學問)이 넓고도 거대(巨大)했음에도, 그는 여전(如前)히 마지막 한 겹의 현묘(玄妙)한 관문(關門)에 가로막혀 있었다. 백가(百家)의 학설(學說)은 제각각(諸各各) 한 극단(極端)만을 고집(固執)하고 있었고, 후세(後世)에 전(傳)해지는 역학(易學)은 대부분(大部分) 후대(後代) 사람들이 사사(私私)로이 덧붙인 후천(後天)의 추론(推論)에 불과(不過)하여, 사방으로 쪼개지고 파편화(破片化)되어 오직 복서(卜筮)에만 치우쳐 있었다. 천지(天地)의 근본(根本)과 근원(根源), 음양(陰陽)의 운화(運化)를 관통(貫通)하는 정통(正統) 체계(體系)가 언제나 부족(不足)했던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치(理致)를 알고 눈으로 괘상(卦象)을 보았으나, 만물(萬物)의 규율(規律)을 하나로 꿰어낼 진짜 전수(傳授)된 심법(心法)이 없었으니, 이러한 병목 구간(區間)은 이름난 스승의 정밀(精密)한 일침(一針)과 깨우침이 아니고서는 결코 판국(局)을 깨뜨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소옹이 문을 닫고 깊은 사색(思索)에 잠겨 고통(苦痛)스럽게 길을 구하던 이때, 한 차례 불세출(不世出)의 기연(機緣)이 소리 없이 찾아왔다. 그 무렵 산동(山東)의 명사(名士) 이지재(李之才)는 자(字)가 퇴지(挺之)이고 대대(代代)로 북해(北海)에 살았는데, 상고(上古) 시대 역학의 정통 맥락(脈絡)을 온몸에 짚어낸 인물(人物)이자 북송(北宋) 시절(時節)에 하락(河洛)의 근원과 선천의 수리(數理)에 정통했던 몇 안 되는 은거(隱居)한 대가(大家)였다. 이지재는 학식(學識)이 박학(博學)하여 조정(朝廷)의 화려(華麗)함과 부귀(富貴) 영화(榮華)를 탐(貪)하지 않았고 세속(世俗)의 학문 다스림을 따르지 않았으며, 평생(平生)을 선천 역학에 깊이 매진(邁進)하여 천지의 운화와 음양의 소장(消長)에 숨겨진 비밀(祕密)을 깊이 탐구(探究)했다. 그의 언론(言論)은 경서(經書)의 조항(條項)과 교조(教條)에 얽매이지 않고 곧바로 하락의 원천(源泉)으로 거슬러 올라가 천지의 본심(本心)을 곧장 가리켰다. 음양의 나아가고 물러남, 사시(四時)의 운행, 만물의 생겨나고 죽는 이치에 대한 그의 말은, 마침 소옹이 수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의혹(疑惑)에 명쾌(明快)한 해답(解答)을 주었다. 이전(以前)에 소옹은 서책을 널리 읽고 산하를 두루 겪었으나, 무수(無數)히 파편화된 인지(認知)들이 가슴속에 꽉 막혀 하나로 연결(連結)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지재의 높은 논리를 들으니 마치 구름을 밀어내어 푸른 하늘을 보고 어두운 방에서 등불을 만난 듯했다. 그는 눈앞의 인물이 바로 자신이 수년 동안 고통스럽게 찾아 헤매던 오도(悟道)의 이름난 스승임을 깊이 깨닫고, 즉시(即時) 몸을 굽혀 큰절을 올리며 정성(精誠)어린 마음으로 가르침을 청(請)하고 한사코 제자(弟子)가 되어 배우기를 구(求)했다.

그 무렵 천하의 역학은 본래(本來) 은밀(隱密)하게만 전해져 스스로를 지켰으며 문호(門戶)의 장벽(障壁)이 지극(至極)히 엄격(嚴格)했다. 세가(世家)의 술사(術士)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들은 대부분 철학을 가문(家門)의 사사로운 이익(利益)으로 여겨 비밀스럽게 감추고 보존(保存)할 뿐, 결코 가벼이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천년 이래(以來) 선천 역학은 날로 쇠퇴(衰退)해 갔고 후천의 잡(雜)스러운 술수만이 세상에 범람(汎濫)하여 견강부회(牽強附會)하고 어중이 떠중이가 뒤섞이니,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점을 치고 사주(四柱) 명리(命理)를 보는 것을 역학의 근본으로 삼아 상고(上古) 시대에 하늘을 관찰(觀察)하여 도를 깨닫고 세상의 운수를 추론(推論)하던 정통 핵심(核心)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이지재는 이러한 세속(世俗)의 폐단(弊端)을 꿰뚫어 보고, 위없고 높은 대도가 한낱 좁은 문파의 사사로운 도구(道具)나 허황(虛荒)된 술수로 전락(轉落)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에 그는 문호의 장벽(障壁)을 과감(果敢)히 깨부수고 비밀리에만 전수하던 누습(陋習)을 배척(排斥)하며 분연(奮然)히 승낙(承諾)했으니, 평생 배운 바와 선천의 정종(正宗)을 남김없이 소옹에게 전해주기로 결심(決心)했다.

이때부터 이지재는 공성의 시골 관아(官衙)에서 공무(公務) 여백(餘白)이 생길 때마다 절차(節次)를 밟아 차근차근 마음을 다해 도를 전수하며 소옹에게 완전히 새로운 역학의 천지를 열어주었다. 그는 먼저 세속의 그릇된 오류(誤謬)를 바로잡으며, 후세의 역학이 본말을 뒤집고 선후(先後)의 차례(次序)를 잃어버린 채 후천의 괴상으로 망령(妄靈)되이 천도를 추론하기 때문에 견강부회하여 맞지 않고 표면(表面)에만 머무르는 것이라고 준엄(嚴峻)하게 지적(指摘)했다. 이어서 하락의 본원, 선천의 괘 차례, 천지의 정위(定位), 음양의 진퇴(進退), 오행(五行)의 유전(流轉), 사시의 바뀔에 숨겨진 핵심(核心) 현묘(玄妙)를 층층(層層)이 전수했다. 하도의 수와 낙서의 이치로부터 선천 건곤(乾坤)의 정위와 음양의 소장(消長), 나아가 천지의 열리고 닫힘, 만물의 운화, 세상 운수 교체의 밑바탕 규율에 이르기까지, 글자마다 진짜 전수였고 구절마다 정수(精髓)였으니 이는 모두 전적(典籍)에 실려 있지 않고 세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상고 시대의 대도였다.

소옹은 이 진짜 전수를 얻으니 마치 마른 나무가 봄을 만나고 대도가 종가(宗家)로 돌아간 듯했다. 그는 밤낮으로 정좌(靜坐)하여 참구(參究)하고 깨달았으며, 잠자는 것과 먹는 것조차 잊은 채 부지런히 노력(努力)하여 자신(自身)이 수십 년 동안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 산하를 겪은 견문(見聞), 인간 세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지재가 전해준 선천의 수리와 하나하나 대조하며 증명(證明)했다. 지난날 의혹을 품고 풀어내지 못했던 의리들이 이제 가슴속에서 활짝 열렸고, 과거(過去)에 조각나 흩어져 있던 인지들이 이 순간(瞬間) 하나로 융합(融合)되어 거대한 몸체를 이루었다. 그는 마침내 선천이 체(體)가 되고 후천이 용(用)이 되는 본질적(本質的)인 차이(差異)를 철저(徹底)히 분별(分別)해 내었으며, 후세(後世) 역학에 가치없이 덧붙여진 허황되고 잡스러운 학설을 물리치고 상고 역학의 '이치를 근본으로 삼고, 수를 도구로 쓰며, 괴상으로 증거를 삼는다(以理為根, 以數為用, 以象為證)는 정종의 본원으로 복귀(復歸)했다.

이지재가 도를 전함에 있어서는 화려한 문구(文句)의 암송(暗誦)을 중(重)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심법(心法)의 체득(體得)하고 깨달음만을 고수(堅守)했다. 그는 소옹에게 궤에 집착하지 말고 수에 갇히지 말며, 하늘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관조(觀照)하고 천도로써 인간 세상의 일을 관찰하라고 가르쳤다. 천지의 운화에는 스스로 정해진 정수(定數)가 있고 흥성함과 쇠퇴함이 가고 오는 것은 모조리 자연(自然)의 섭리(涉理)이며, 음양의 상생(相生) 상극(相剋)하는 순환(循環)은 끝이 없어 만 가지 변화가 일어나도 본래의 종지(宗旨)는 바꾸지 않음을 명백(明白)히 알게 했다. 이름난 스승의 과녁을 맞히는 정확(正確)한 일침 아래, 소옹의 학문은 마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침내 수많은 질곡(桎梏)을 돌파(突破)하여 백가 학설이 지닌 파편화된 국한성(局限成)을 떨쳐버렸고, 천도와 수리, 인사(人事)와 고금을 하나로 관통하는 완전(完全)한 인지 체계를 구축(構築)해 내었다.

수개월(數個月) 동안 고통스럽게 닦고 밤낮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새기니 소용은 마침내 융회관통(融會貫通)을 이루어 냈고, 실전되었던 천년의 상고 역학 정종을 완전히 어루만졌다. 수년 동안 가슴속을 맴돌던 학문의 병목 구간이 하루아침에 돌파되니, 예전에 글을 읽으며 보았던 바와 길을 가며 깨달았던 바, 사물을 관찰하며 생각했던 만 가지 도리가 모조리 한 줄기로 꿰어져 하나로 돌아갔다. 그는 마침내 하늘과 사람의 연관성(聯關性)을 통찰(洞察)하여 천지 운화의 비밀, 고금 치란(治亂)의 규율, 만물 생멸(生滅)의 상도(常道)를 통달(通達)하게 되었으니, 진정(真正)으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지고(至高)한 대도의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훗날 황극(皇極)의 수리를 독창(獨創)하고 만세(萬世)의 세상 운수를 추론하며 천고의 종사(宗師)가 될 위대(偉大)한 위업(偉業)을 이룩할, 그 무엇으로도 대체(代替)할 수 없는 도통(道通)의 뿌리 기틀을 견고(堅固)히 다지게 되었다.

第五章 邂逅名师，北海执手传先天

万里归程踏尽，山河沧桑入怀。邵雍遍历四方、阅尽千古兴衰之后，自河洛故道返还共城。数年远游，他以天地为书、以古今为证，打通了书本义理与人间世事的壁垒，胸中所学浩瀚广博，却依旧卡在最后一重玄关：百家之说各执一端，后世流传的易学多为后人附会的后天推演，支离破碎、偏重卜筮，始终缺少一套贯通天地本源、阴阳运化的正宗体系。他心中知理、眼中见象，却无真传心法串联万物规律，这般瓶颈，非名师点化、不得破局。

正当邵雍闭门沉思、苦苦求索之际，一场旷世机缘悄然降临。彼时山东名士李之才，字挺之，世居北海，身负上古易学正统传承，乃是北宋年间为数不多精通河洛本源、先天数理的隐世大家。李之才学识渊博，不慕朝堂浮华，不随世俗治学，一生深耕先天易学，深究天地运化、阴阳消长之秘，深知后世易学流变失真、本末倒置的弊病。他遍历州县、寻访可传大道之人，不愿让千年正宗易学埋没失传。恰逢其调任共城司户，履职乡野，得以与邵雍相逢。

初遇之日，二人闲谈论学、辨析义理，寥寥数语，便彼此心知不凡。李之才观眼前青年，不骄不躁、气度澄澈，谈吐之间贯通经史、洞悉兴衰，无寻常儒生的迂腐狭隘，亦无方术之士的虚妄功利。更难得的是，邵雍心性纯粹、执念悟道，不求功名、不逐术数，只求溯源天地本源，这般本心与天资，正是传承先天绝学的不二人选。千载道统，终于觅得传人，李之才心中感慨，深知此子将来必能重振易学、贯通天人。

邵雍亦在交谈之中，察觉李之才所学远超世俗百家。其言论不囿于经书教条，直溯河洛源头、直指天地本心，所言阴阳进退、四时运化、万物生灭之理，恰好解答了自己多年积攒的所有困惑。此前邵雍博览群书、遍历山河，无数碎片化的认知卡在胸中无法串联，此刻听闻李之才高论，如拨云见日、如暗室逢灯。他深知眼前之人，便是自己苦寻多年的悟道名师，当即躬身長拜，诚心求教，执意拜师求学。

彼时天下易学，向来秘传自守、门户森严，世家术士多藏私自保，视绝学为传世私利，不肯轻易授人。千年以来，先天易学日渐式微，后天杂术泛滥世间，附会牵强、鱼龙混杂，世人多以下卦算命为易学根本，早已遗失上古观天悟道、推演世运的正宗内核。李之才看破世俗弊端，不愿让无上大道沦为小众私器、虚妄术数，遂摒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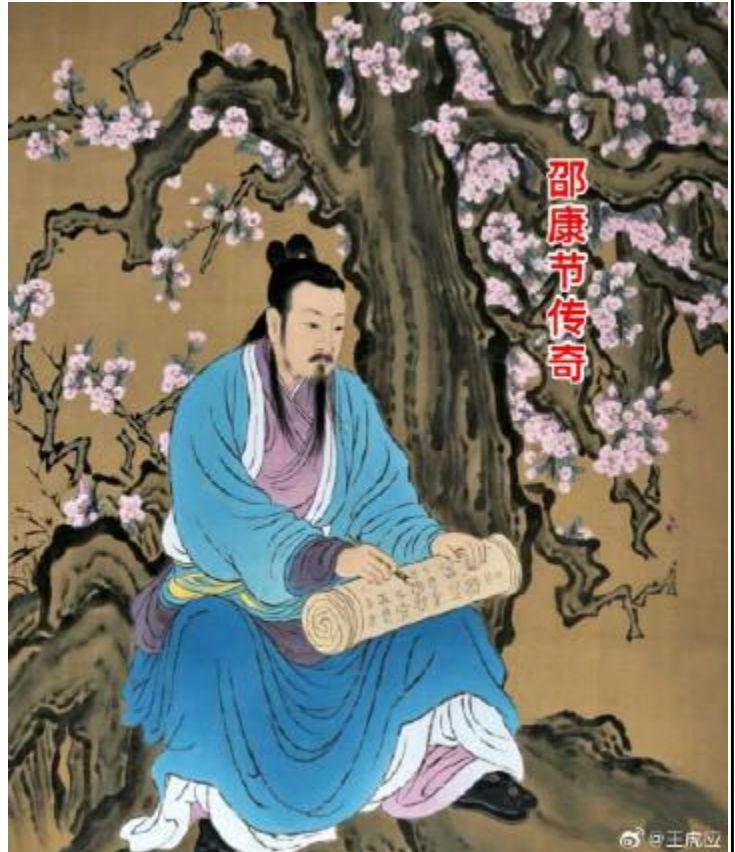
弃门户壁垒、打破秘传陋习，慨然应允，决意将毕生所学、先天正宗尽数传予邵雍。自此，李之才于共城闲暇之余，循序渐进、悉心传道，为邵雍开启全新的易学天地。他先纠偏世俗谬误，直言后世易学颠倒本末、先后失序，以后天卦象妄推天道，故而牵强不准、流于表面。随后逐层传授河洛本源、先天卦序、天地定位、阴阳进退、五行流转、四时迭代的核心玄机。从河图之数、洛书之理，到先天乾坤定位、阴阳消长，再到天地开合、万物运化、世运更迭的底层规律，字字真传、句句精髓，皆是典籍不载、世俗难寻的上古大道。

邵雍得此真传，如枯木逢春、大道归宗。他日夜静坐参悟，废寝忘食、孜孜不倦，将自己数十年读书积累、山河阅历、人世感悟，与李之才所传的先天数理一一印证。往日困惑不解的义理，此刻豁然开朗；往日零散破碎的认知，此刻浑然一体。他彻底分清先天为体、后天为用的本质区别，摒弃后世易学附会的虚妄杂说，回归上古易学“以理为根、以数为用、以象为证”的正宗本源。

李之才传道，不重辞句背诵，唯重心法体悟。他教邵雍不执于卦、不困于数，以天心观人心，以天道观人事，明白天地运化自有定数，盛衰往复皆是自然，阴阳相生相克、循环无尽，万物万变不离其宗。在名师的精准点拨下，邵雍的学问彻底突破桎梏，挣脱了百家学说的碎片化局限，搭建起一套贯通天道、数理、人事、古今的完整认知体系。

数月苦修、日夜沉淀，邵雍终得融会贯通，彻底触摸到失传千年的上古易学正宗。

多年萦绕心头的学问瓶颈一朝突破，从前读书所见、行路所悟、观物所思的万千道理，尽数串联归一。他终于勘破天人关联，通晓天地运化之秘、古今治乱之律、万物生灭之常，真正叩开了天人合一的至高大道之门，为日后独创皇极数理、推演万世世运、成就千古宗师伟业，奠定了无可替代的道统根基。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왕창령전(王昌齡傳)

왕창령은 자(字)가 소백(少伯)이고 병주(并州) 태원(太原) 사람이며, 성당(盛唐) 시절 최고(最高)의 시인(詩人)이자 세상(世上)에서 “칠절성수(七絕聖手)”라 일컫는 인물(人物)이다. 당나라의 시와 서책(書冊)을 대대(代代)로 가꾸어 온 집안 출신(出身)으로, 왕창령은 어릴 적 분하(汾河)의 물가에 거주(居住)하며 병주 산천(山川)의 신령(神靈)스럽고 빼어난 기운(氣運)을 듬뿍 받았으니, 자라나며 학문(學問)을 몹시 좋아하고 시문(詩文)을 독실(篤實)히 즐겼다. 젊은 시절 집안 형편(形便)이 몹시도 청빈(淸貧)하여 의지(依支)할 만한 가산(家產)이 없었으나, 묵직하게 전적(典籍)에 마음을 쏟아 밤낮으로 송독(誦讀)했으며 풍아(風雅)와 초사(楚辭)를 두루 겪고 시문(詩文)의 격률(格律)을 깊이 탐구(探究)했다. 그의 타고난 성품(性品)은 트이고 밝았으며 고매(高邁)했고 가슴속 품은 생각은 아득히 넓어, 고향(故鄉) 땅 한 구석에 얽매이지 않고 늘 천하(天下) 사방(四方)을 노니는 뜻을 품고 있었다. 약관(弱冠)의 나이를 넘긴 뒤, 고향을 떠나 멀리 유람(遊覽)하며 하룡(河隴)과 장회(江淮)의 땅을 두루 거쳤다. 그리하여 변방(邊方) 요새(要塞)의 아득함과 강호(江湖)의 홍수(洪水)처럼 호탕(浩蕩)한 기상(氣象)을 바라보며 천지의 만(萬) 가지 형상(形象)을 가슴속에 모조리 거두어들이니, 이로써 시문을 짓는 데 만 가지 기상을 두터이 쌓게 되었다.

개원(開元) 연간(年間)에 왕창령은 진사(進士) 관등(官等)에 급제(及第)하여 벼슬길에 발을 들여놓았고, 비서성(祕書省) 교서랑(校書郎), 사수위(汜水尉), 강령승(江寧丞) 등(等)의 관직(官職)을 차례로 역임(歷任)했다. 그의 사람됨은 강직(剛直)하고 굳세며 품성(品性)이 청고(淸高)하여, 권세가(權勢家)와 귀족(貴族)에게 아첨(阿諛)하며 붙어먹는 짓을 하찮게 여겼고 조정(朝廷)의 벼슬아치들이 아부하는 태도(態度)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성당의 조정(朝廷)이 비록 태평성대(太平聖代)의 번화(繁華)함을 누리고 있었으나, 실제(實際)로는 권력가(權力家)들이 무리를 짓고 관리(官吏)들의 다스림 속에 폐단(弊端)이 숨어 있었기에, 왕창령은 본심(本心)을 굳게 지키며 맑고 바르게 스스로를 다스렸다. 이 때문에 자주 변방(邊方)으로 내치어지는 안타까운 고초(苦楚)를 겪으며 강호의 주현(州縣)을 전전(轉展)하느라 평생(平生)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벼슬길이 곤궁(困窮)하고 불우(不遇)했으나 그것이 그의 뜻을 꺾지는 못했고, 오히려 인간 세상의 백 가지 태도를 남김없이 겪어내며 가슴속 풍골(風骨)을 묵직하게 가라앉혀 모조리 시문 사이에 녹여내었다. 그의 시 작품(作品)은 다루는 제재(題材)가 넓고 웅대(雄大)하여 변방의 시는 쓸쓸하고 웅혼(雄渾)하며 기세(氣勢)가 드높아 성당의 국경(國境)을 지키던 장수(將帥)와 군사(軍士)들의 충의(忠義)롭고 비장(悲壯)한 모습을 다 적어내었다. 또한 여인의 원망(怨望)을 담은 규원시(閨怨詩)나 송별시(送別詩)는 부드럽고 맑으며 정서(情緒)가 깊어 글자마다 뜻이 길게 남는다.

당나라 사람들의 시적(詩的) 격식(格式)이 숲처럼 뻗뻗이 서 있어 이백(李白)과 두보(杜甫)가 우뚝했으나, 왕창령은 유독(唯獨) 칠언절구(七言絕句)에 장기(長技)가 있어 성당의 으뜸으로 솟아났다. 그가 지은 출새(出塞)나 종군행(從軍行) 같은 편장(篇章)은 글귀가 엉겨 굳세고 의경(意境)이 웅혼하여, 단 몇 마디 말로 변방의 산하와 국가(國家)를 사랑하는 정회(情懷)를 다 적어내었으니 후세(後世)의 비평가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批評家)들은 모두 말하기를 “성당의 칠언절구는 왕창령을 제일(第一)로 삼는다”고 하여 그를 칠절성수로 높여 우러렀다. 그의 시문은 단순히 말과 글귀가 정묘(精妙)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라의 대의(大義)와 인간 세상을 가련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어, 태평한 성세(盛世)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을 보아내고 이별(離別)하는 중(中)에도 참된 정성(精誠)을 보존(保存)했다. 왕창령은 태원에서 태어나 분하와 진나라 땅의 문맥(文脈)을 길러내어 한 시대(時代)의 시종(詩宗)이 되었으니, 비록 벼슬길은 영락(零落)하여 보잘것없었으나 영욕(榮辱)으로써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시문으로 세상에 우뚝 서서 천고(千古)에 빛나는 문장(文章)을 남겨 후세의 문단(文壇)을 기름지게 가꾸었으니 참으로 태원 천년 이래(以來) 최고의 시단(詩壇) 선현(先賢)이다.

王昌龄传

王昌龄，字少伯，并州太原人，盛唐顶尖诗家，世称“七绝圣手”。唐氏诗书世家，昌龄幼居汾滨，沐并州山川灵秀，自幼嗜学，笃好诗文。少时家道清寒，无富贵之资，却潜心典籍，昼夜诵读，遍历风雅楚辞，深究诗文格律。其生性疏朗高远，襟怀辽阔，不囿于乡土一隅，常怀四方之志。弱冠之后，辞乡远游，遍历河陇、江淮之地，览边塞苍茫、江湖浩荡，尽收天地万象于胸中，为诗文积淀万千气象。

开元年间，昌龄登进士第，步入仕途，历任秘书省校书郎、汜水尉、江宁丞等职。其为人刚正耿介，品性清高，不屑攀附权贵，不惯朝堂逢迎之态。盛唐朝堂虽盛世繁华，然权贵结党、吏治藏弊，昌龄坚守本心，清正自持，故而屡遭贬谪，辗转江湖州县，终生未居高官。仕途困顿坎坷，却未曾消磨其志，反而阅尽世间百态，沉淀胸中风骨，尽融于诗文之间。其诗作题材广博，边塞诗苍凉雄浑，气势磅礴，写尽盛唐戍边将士忠义悲壮；闺怨、送别之诗，婉转清雅，情致深沉，字字隽永。

唐人诗格林立，李杜之外，昌龄独擅七绝，冠绝盛唐。其所作《出塞》《从军行》等篇，字句凝练、意境雄浑，寥寥数语写尽边塞山河、家国情怀，后世论者皆言“盛唐七绝，以昌龄为第一”，尊为“七绝圣手”。其诗文不止辞藻精妙，更藏家国之大义、人世悲悯，于盛世之中见忧患，于离别之中存赤诚。昌龄生于太原，汲汾晋文脉，成一代诗宗，虽仕途潦倒，不以荣辱扰心，以诗文立世，留千古华章，滋养后世文坛，为太原千年以来第一诗坛先贤。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풍수 사례(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높은 곳에 몸을 세우려거든, 마땅히 졸렬(拙劣)함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옛글에 이르기를, 나무가 숲보다 빼어나면 바람이 반드시 꺾고, 흙더미가 언덕보다 솟아나면 물결이 반드시 거세게 치며, 행실(行實)이 남들보다 높으면 무리가 반드시 비방(誹謗)한다고 했다. 세상(世上) 만물(萬物)이 다 같은 이치(理致)이니, 예리(銳利)한 끝과 광채(光彩)를 너무 드러내면 대개(大蓋) 외부(外部)의 침범(侵犯)과 번거로움을 초래(招來)하기 쉽다.

건축(建築)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萬若) 누각(樓閣)과 집들이 외롭게 우뚝 솟아 있고 주위(周圍)에 서로 의지(依支)하고 받쳐줄 건물이 없다면, 겹겹의 층차(層次)와 의탁(依託)할 곳이 줄어들어 그 짜임새의 안온(安穩)함을 잃게 된다. 사람이 세상에 입신(立身)하여 살아가는 것 역시 이와 똑같은 도리이다. 재능(才能)과 행실(行實)이 남달리 뛰어난 것은 본래(本來) 좋은 일이지만, 만약 한결같이 드러내어 뽐내거나 홀로 특이(特異)하게 행동(行動)한다면 비난(非難)과 배척(排斥)을 불러들이기 마련이다.

사람을 대(對)하고 처세(處世)할 적에, 구태여 한때의 날카로움을 다룰 필요(必要)는 없다. 심성(心性)을 수렴(收斂)하고 겸손(謙遜)하게 입신하며, 주변(周邊)과 서로 융합(融合)하고 동반(同伴)하여 기틀을 견고(堅固)히 다질 줄 알아야 한다. 날카로운 끝을 마음 밑바닥에 감추고 일상(日常)에서 본심(本心)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걸음이 안정(安靜)되고 멀리 나아가며 오랫동안 편안(便安)할 수 있다.

외로운 봉우리가 우뚝 솟은 것과 같다(如孤峰聳立)



高处立身，宜知守拙

古语有言：木秀于林，风必摧之；堆出于岸，流必湍之；行高于人，众必非之。世间万物皆是同理，锋芒太过显露，往往容易招致外界侵扰。

建筑亦是如此，若是楼宇孤然挺立，周遭无建筑相衬托，少了层次与依托，格局便失了安稳。人立于世，亦是这般道理。才华出众、品行出众本是好事，可若是一味张扬、特立独行，难免引来非议与排挤。为人处世，不必刻意争一时锋芒。懂得收敛心性、谦和立身，与周遭相融相伴，稳扎根基。藏锋芒于心底，守本心于日常，方能行稳致远，长久安然。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추명서(推命書)》20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스무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門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間(約1818

年)刊行的首部系統譯介中國四柱推命的專著，以徐升《淵海子平》為底本，採用和刻線裝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獻，同時因作者非專精命理，存在翻譯精度與體系适配的歷史局限。

學術脈絡：江戶中期中國四柱推命傳入日本，櫻田虎門結合自身儒易與五行學積累，完成首部系統譯介，首次將“斷易”命名為“五行易”，為後續日本推命學發展奠定術語基礎。

歷史意義：是日本推命學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連載之二十。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庚子ノ生人己酉丑三ツロワカ又ハ申酉戌三ツロワカ
 三ツロワカ云南方火運ヲ忌限等既運ヲ喜フ○亥卯木ニ
 アフ者コレヲ金木開單ト云沖刑ヲ忌限破也
 歲運同シ○命申酉戌全ク○上月全ク
 土アリテ全ク生ヲソノ稱ニ從フ大吉トス
 辛巳

豫格
 戊巳日ノ生人辰戌丑未四ツロワカ三ツロワカ又ハ申酉戌三ツロワカ
 財運ヲ忌○命辰戌丑未全ク又亥水ヲ得テ財トシ又木
 ノ支スルナシ○此格西南ヲ喜ヒ東北ヲ忌ム
 丙午時ノ子辰巳アルハ培養ノ切深シ○此格
 辛巳本

丙午 忌東方未運ニテ身旺ヲ入火運モ同
 甲午 同

潤下格
 壬癸ノ日ノ生人辰申三ツロワカ又ハ戌子丑ノ三ツロワカ
 ナリ○ロワカ云西方金運ヲ喜フ東南火運ニ不利沖刑ヲ
 怕此歲運同シ○萬景人命甲子辰全ク子ノ水御テ得
 テ庚辛又コレヲ生ニ福澤廣長ク富貴ノ人ナ
 リ○庚辰水ヲ得テ清芳望ニ○土運ニア
 ハ申酉 命トス
 辛亥 命トス

從革格
 月曆 ○此格ニアフ者富貴全クトス
 壬癸ノ日ノ生人辰戌丑未ニテ官星トシ寅戌火火官
 ニアフテ財星トスルヲ云壬寅壬戌辰戌未全ク五
 庚戌 日ヲシテ沖破ヲ忌限辨テハ不吉○此格ニ
 命トス
 アフ者性溫和ニシテ智慧アリ禮貌アリ政ニシ
 テ格ヲラス而也赤黒トス○刑トニアフ者忌
 命トス
 運コレニアフ不利

夾上格
 乙未 丙丁ノ日ノ生人寅申火三ツロワカ又ハ巳
 辰未ニツカガリ此格ニ喜フロワカ云水運全ク運ヲ

丙午 忌東方未運ニテ身旺ヲ入火運モ同
 甲午 同

潤下格
 壬癸ノ日ノ生人辰申三ツロワカ又ハ戌子丑ノ三ツロワカ
 ナリ○ロワカ云西方金運ヲ喜フ東南火運ニ不利沖刑ヲ
 怕此歲運同シ○萬景人命甲子辰全ク子ノ水御テ得
 テ庚辛又コレヲ生ニ福澤廣長ク富貴ノ人ナ
 リ○庚辰水ヲ得テ清芳望ニ○土運ニア
 ハ申酉 命トス
 辛亥 命トス

從革格
 月曆 ○此格ニアフ者富貴全クトス
 壬癸ノ日ノ生人辰戌丑未ニテ官星トシ寅戌火火官
 ニアフテ財星トスルヲ云壬寅壬戌辰戌未全ク五
 庚戌 日ヲシテ沖破ヲ忌限辨テハ不吉○此格ニ
 命トス
 アフ者性溫和ニシテ智慧アリ禮貌アリ政ニシ
 テ格ヲラス而也赤黒トス○刑トニアフ者忌
 命トス
 運コレニアフ不利

夾上格
 乙未 丙丁ノ日ノ生人寅申火三ツロワカ又ハ巳
 辰未ニツカガリ此格ニ喜フロワカ云水運全ク運ヲ

丙午 忌東方未運ニテ身旺ヲ入火運モ同
 甲午 同

潤下格
 壬癸ノ日ノ生人辰申三ツロワカ又ハ戌子丑ノ三ツロワカ
 ナリ○ロワカ云西方金運ヲ喜フ東南火運ニ不利沖刑ヲ
 怕此歲運同シ○萬景人命甲子辰全ク子ノ水御テ得
 テ庚辛又コレヲ生ニ福澤廣長ク富貴ノ人ナ
 リ○庚辰水ヲ得テ清芳望ニ○土運ニア
 ハ申酉 命トス
 辛亥 命トス

從革格
 月曆 ○此格ニアフ者富貴全クトス
 壬癸ノ日ノ生人辰戌丑未ニテ官星トシ寅戌火火官
 ニアフテ財星トスルヲ云壬寅壬戌辰戌未全ク五
 庚戌 日ヲシテ沖破ヲ忌限辨テハ不吉○此格ニ
 命トス
 アフ者性溫和ニシテ智慧アリ禮貌アリ政ニシ
 テ格ヲラス而也赤黒トス○刑トニアフ者忌
 命トス
 運コレニアフ不利

夾上格
 乙未 丙丁ノ日ノ生人寅申火三ツロワカ又ハ巳
 辰未ニツカガリ此格ニ喜フロワカ云水運全ク運ヲ

丙午 忌東方未運ニテ身旺ヲ入火運モ同
 甲午 同

潤下格
 壬癸ノ日ノ生人辰申三ツロワカ又ハ戌子丑ノ三ツロワカ
 ナリ○ロワカ云西方金運ヲ喜フ東南火運ニ不利沖刑ヲ
 怕此歲運同シ○萬景人命甲子辰全ク子ノ水御テ得
 テ庚辛又コレヲ生ニ福澤廣長ク富貴ノ人ナ
 リ○庚辰水ヲ得テ清芳望ニ○土運ニア
 ハ申酉 命トス
 辛亥 命トス

從革格
 月曆 ○此格ニアフ者富貴全クトス
 壬癸ノ日ノ生人辰戌丑未ニテ官星トシ寅戌火火官
 ニアフテ財星トスルヲ云壬寅壬戌辰戌未全ク五
 庚戌 日ヲシテ沖破ヲ忌限辨テハ不吉○此格ニ
 命トス
 アフ者性溫和ニシテ智慧アリ禮貌アリ政ニシ
 テ格ヲラス而也赤黒トス○刑トニアフ者忌
 命トス
 運コレニアフ不利

夾上格
 乙未 丙丁ノ日ノ生人寅申火三ツロワカ又ハ巳
 辰未ニツカガリ此格ニ喜フロワカ云水運全ク運ヲ

丙午 忌東方未運ニテ身旺ヲ入火運モ同
 甲午 同

潤下格
 壬癸ノ日ノ生人辰申三ツロワカ又ハ戌子丑ノ三ツロワカ
 ナリ○ロワカ云西方金運ヲ喜フ東南火運ニ不利沖刑ヲ
 怕此歲運同シ○萬景人命甲子辰全ク子ノ水御テ得
 テ庚辛又コレヲ生ニ福澤廣長ク富貴ノ人ナ
 リ○庚辰水ヲ得テ清芳望ニ○土運ニア
 ハ申酉 命トス
 辛亥 命トス

從革格
 月曆 ○此格ニアフ者富貴全クトス
 壬癸ノ日ノ生人辰戌丑未ニテ官星トシ寅戌火火官
 ニアフテ財星トスルヲ云壬寅壬戌辰戌未全ク五
 庚戌 日ヲシテ沖破ヲ忌限辨テハ不吉○此格ニ
 命トス
 アフ者性溫和ニシテ智慧アリ禮貌アリ政ニシ
 テ格ヲラス而也赤黒トス○刑トニアフ者忌
 命トス
 運コレニアフ不利

夾上格
 乙未 丙丁ノ日ノ生人寅申火三ツロワカ又ハ巳
 辰未ニツカガリ此格ニ喜フロワカ云水運全ク運ヲ

丙午 忌東方未運ニテ身旺ヲ入火運モ同
 甲午 同

潤下格
 壬癸ノ日ノ生人辰申三ツロワカ又ハ戌子丑ノ三ツロワカ
 ナリ○ロワカ云西方金運ヲ喜フ東南火運ニ不利沖刑ヲ
 怕此歲運同シ○萬景人命甲子辰全ク子ノ水御テ得
 テ庚辛又コレヲ生ニ福澤廣長ク富貴ノ人ナ
 リ○庚辰水ヲ得テ清芳望ニ○土運ニア
 ハ申酉 命トス
 辛亥 命トス

從革格
 月曆 ○此格ニアフ者富貴全クトス
 壬癸ノ日ノ生人辰戌丑未ニテ官星トシ寅戌火火官
 ニアフテ財星トスルヲ云壬寅壬戌辰戌未全ク五
 庚戌 日ヲシテ沖破ヲ忌限辨テハ不吉○此格ニ
 命トス
 アフ者性溫和ニシテ智慧アリ禮貌アリ政ニシ
 テ格ヲラス而也赤黒トス○刑トニアフ者忌
 命トス
 運コレニアフ不利

夾上格
 乙未 丙丁ノ日ノ生人寅申火三ツロワカ又ハ巳
 辰未ニツカガリ此格ニ喜フロワカ云水運全ク運ヲ

丙午 忌東方未運ニテ身旺ヲ入火運モ同
 甲午 同

潤下格
 壬癸ノ日ノ生人辰申三ツロワカ又ハ戌子丑ノ三ツロワカ
 ナリ○ロワカ云西方金運ヲ喜フ東南火運ニ不利沖刑ヲ
 怕此歲運同シ○萬景人命甲子辰全ク子ノ水御テ得
 テ庚辛又コレヲ生ニ福澤廣長ク富貴ノ人ナ
 リ○庚辰水ヲ得テ清芳望ニ○土運ニア
 ハ申酉 命トス
 辛亥 命トス

從革格
 月曆 ○此格ニアフ者富貴全クトス
 壬癸ノ日ノ生人辰戌丑未ニテ官星トシ寅戌火火官
 ニアフテ財星トスルヲ云壬寅壬戌辰戌未全ク五
 庚戌 日ヲシテ沖破ヲ忌限辨テハ不吉○此格ニ
 命トス
 アフ者性溫和ニシテ智慧アリ禮貌アリ政ニシ
 テ格ヲラス而也赤黒トス○刑トニアフ者忌
 命トス
 運コレニアフ不利

夾上格
 乙未 丙丁ノ日ノ生人寅申火三ツロワカ又ハ巳
 辰未ニツカガリ此格ニ喜フロワカ云水運全ク運ヲ

丙午 忌東方未運ニテ身旺ヲ入火運モ同
 甲午 同

潤下格
 壬癸ノ日ノ生人辰申三ツロワカ又ハ戌子丑ノ三ツロワカ
 ナリ○ロワカ云西方金運ヲ喜フ東南火運ニ不利沖刑ヲ
 怕此歲運同シ○萬景人命甲子辰全ク子ノ水御テ得
 テ庚辛又コレヲ生ニ福澤廣長ク富貴ノ人ナ
 リ○庚辰水ヲ得テ清芳望ニ○土運ニア
 ハ申酉 命トス
 辛亥 命トス

從革格
 月曆 ○此格ニアフ者富貴全クトス
 壬癸ノ日ノ生人辰戌丑未ニテ官星トシ寅戌火火官
 ニアフテ財星トスルヲ云壬寅壬戌辰戌未全ク五
 庚戌 日ヲシテ沖破ヲ忌限辨テハ不吉○此格ニ
 命トス
 アフ者性溫和ニシテ智慧アリ禮貌アリ政ニシ
 テ格ヲラス而也赤黒トス○刑トニアフ者忌
 命トス
 運コレニアフ不利

夾上格
 乙未 丙丁ノ日ノ生人寅申火三ツロワカ又ハ巳
 辰未ニツカガリ此格ニ喜フロワカ云水運全ク運ヲ

丙午 忌東方未運ニテ身旺ヲ入火運モ同
 甲午 同

潤下格
 壬癸ノ日ノ生人辰申三ツロワカ又ハ戌子丑ノ三ツロワカ
 ナリ○ロワカ云西方金運ヲ喜フ東南火運ニ不利沖刑ヲ
 怕此歲運同シ○萬景人命甲子辰全ク子ノ水御テ得
 テ庚辛又コレヲ生ニ福澤廣長ク富貴ノ人ナ
 リ○庚辰水ヲ得テ清芳望ニ○土運ニア
 ハ申酉 命トス
 辛亥 命トス

從革格
 月曆 ○此格ニアフ者富貴全クトス
 壬癸ノ日ノ生人辰戌丑未ニテ官星トシ寅戌火火官
 ニアフテ財星トスルヲ云壬寅壬戌辰戌未全ク五
 庚戌 日ヲシテ沖破ヲ忌限辨テハ不吉○此格ニ
 命トス
 アフ者性溫和ニシテ智慧アリ禮貌アリ政ニシ
 テ格ヲラス而也赤黒トス○刑トニアフ者忌
 命トス
 運コレニアフ不利

夾上格
 乙未 丙丁ノ日ノ生人寅申火三ツロワカ又ハ巳
 辰未ニツカガリ此格ニ喜フロワカ云水運全ク運ヲ

왕호응(王虎應) 프로필 사진탐구(2026년6월15일웨이보공개)

頭像探秘(두상탐비, 프로필 사진 탐구)*



뒤에서 남 말(뒷담화) 하길 좋아하다니, 이 판단 참으로 매섭구나! (왕호응 판단)

@음양자재: 우주는 모든 정보를 다 담으니, 미세한 상(象)이 전체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

•음양자재(陰陽自在): 보내주신 프로필 사진(頭像)을 제가 한번 분석(分析)해 볼 테니, 맞지 않더라도 너무 마음에 두진 마세요.

•음양자재(陰陽自在): 구속(拘束)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단속(團束)하지 못하는 편이며, 노력(努力)하며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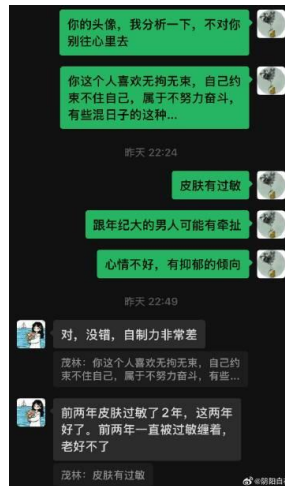
투(奮鬪)하기보다는 다소 되는대로 살아가는 부류(部類)에 속(屬)합니다...

- 음양자재(陰陽自在): 피부(皮膚)에 과민(過敏) 반응(反應)(알레르기)이 있습니다.
- 음양자재(陰陽自在): 나이 많은 남자(男子)와 연루(連累)되어 얽혀있을 가능성(可能性)이 있습니다.
- 음양자재(陰陽自在): 심정(心情)이 좋지 않고, 우울(憂鬱)한 경향(傾向)이 있습니다.
- 의뢰인(依賴人): 네, 맞아요, 자제력(自制力)이 매우 떨어집니다.
(인용[引用]: 구속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단속하지 못하는 편이며, 노력하며 분투하기보다는 다소...)
- 의뢰인(依賴人): 지나간 2년 동안 피부 과민 반응으로 2년을 고생(苦生)했는데, 요 2년은 좋아졌어요. 지난 2년간 줄곧 과민 반응에 시달려서 도통 낮지않았거든요.
(인용: 피부에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 의뢰인(依賴人): 이걸 정말 있어요, 이전에 병원(病院)에 가서 진단(診斷)받아 보니 불안증(不安症)이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밤을 꼬박 새우며 불면(不眠)에 시달렸어요.
(인용: 심정이 좋지 않고, 우울한 경향이 있습니다)
- 의뢰인(依賴人): 화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어요, 피드백 드리는 거죠, 실제(實際) 상황(狀況)입니다. 지난 2년간 확실히(確實) 직장(職場)에서도 나이 많은 선배(先輩) 하나가 자꾸 저를 괴롭히고 교란(攪亂)하긴 했어요.
- 의뢰인(依賴人): 프로필 사진 하나만으로 이렇게나 많은 것을 분석해 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
- 음양자재(陰陽自在):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프로필 사진은 남의 등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성향(性向)을 반영(反映)하고 있습니다.

왕호응(王虎應) 프로필사진탐구(2026년6월15일웨이보공개)

- 의뢰인(依頼人): 이 프로필 사진에서 그런 것까지 다 보인단 말인가요 😊😊 세상(世上)에, 정말 상상(想像) 초월(超越)이네요.
- 음양자재(陰陽自在): 😊😊 그쪽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 음양자재(陰陽自在): 이 프로필 사진에서 그렇게 분석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의뢰인(依頼人): 저 원래 그래요 😊😊 저 진짜로 뒤에서 직장 일 씹어대고 투덜거리는 거 엄청 좋아해요.

- 음양자재(陰陽自在): 你的头像，我分析一下，不对你别往心里去
- 음양자재(陰陽自在): 你这个人喜欢无拘无束，自己约束不住自己，属于不努力奋斗，有些混日子的这种...
- 음양자재(陰陽自在): 皮肤有过敏
- 음양자재(陰陽自在): 跟年纪大的男人可能有牵扯
- 음양자재(陰陽自在): 心情不好，有抑郁的倾向
- 의뢰인(依頼人): 对，没错，自制力非常差
茂林：你这个人喜欢无拘无束，自己约束不住自己，属于不努力奋斗，有些...
- 의뢰인(依頼人): 前两年皮肤过敏了2年，这两年好了。前两年一直被过敏缠着，老好不了
茂林：皮肤有过敏
- 의뢰인(依頼人): 这个有，之前去医院看过有焦虑症，之前整夜整夜失眠
茂林：心情不好，有抑郁的倾向
- 의뢰인(依頼人): 不存在啥生气不生气啊，给你反馈嘛，真实反馈。前两年确实单位也有一个年纪大的哥老骚扰我
- 의뢰인(依頼人): 一个头像就能分析这么多很厉害了👍👍👍
- 음양자재(陰陽自在): 还有一个，这个头像可以反映这个喜欢在背后嚼舌根
- 의뢰인(依頼人): 这头像都能看出来那么多😂😂天呐，太夸张了
- 음양자재(陰陽自在): 😊😊😊不是说你
- 음양자재(陰陽自在): 是这个头像能看出
- 의뢰인(依頼人): 我就是喜欢😊😊我特别爱背后吐槽单位的事



* 의뢰인이 프로필 사진을 제시하면 왕호응 선생이 그 상(象)을 취하여 운명학적인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임.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및 왕호응 및 유철경 저작물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중현

왕호응(王虎應) 제자 사례 (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王淵Yzfs)

인월(寅月) 을해일(乙亥日),
어떤 여성이 질병을 예측하여,
천지비(天地否)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甲寅月 乙亥日

八卦

天地否(乾金宮) 之 天地否(乾金宮)

應 父 壬戌 <small>蓋天</small>	玄 父 壬戌 <small>蓋天</small>	應 伏 父 壬戌 <small>蓋天</small>
兄 壬申 <small>空 馬乙花劫</small>	白 兄 壬申 <small>空 馬乙花劫</small>	伏 兄 壬申 <small>空 馬乙花劫</small>
官 壬午 <small>將害</small>	蛇 官 壬午 <small>將害</small>	伏 官 壬午 <small>將害</small>
世 財 乙卯 <small>閨花將</small>	勾 財 乙卯 <small>閨花將</small>	世 伏 父 甲辰 <small>馬月花鞍</small>
官 乙巳 <small>亡馬</small>	朱 官 乙巳 <small>亡馬</small>	伏 財 甲寅 <small>閨地亡</small>
父 乙未 <small>花鞍喜蓋</small>	青 父 乙未 <small>花鞍喜蓋</small>	伏 孫 甲子 <small>帳馬災乙花</small>
六合卦	六合卦	

卦身: 兄申

世身: 四爻

空亡: 申酉

판단(判斷): 세효(世爻)를 용신(用神)으로 삼는데, 세효가 월(月)이 부(扶)하고 일(日)이 생(生)하여 왕상(旺相)하고, 괘 중에 기신(忌神)이 발동(發動)하지 않았으니 마치 아무런 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 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효(二爻) 관귀(官鬼) 사화(巳火)가 암동(暗動)하여 세효의 병지(病地)가 되고, 동시에 암동한 효가 오효(五爻) 형제(兄弟) 신금(申金)과 상합(相合)하니, 이것이 바로 현기(玄機)다.

괘 이름이 천지비이니 상하가 소통되지 않는 상(象)이니, 그녀의 신체 상태가 좋지 않고 경락(經絡)이 그리 원활하게 통하지 못함을 뜻한다. 이효는 생식기 부위의 효위(爻位)인데 관귀가

여기에서 암동했으니, 부인과 방면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주작(朱雀)이 임(臨)했으니 염증을 주하여, 나는 그녀에게 자궁부속기염(子宮附屬器炎)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효는 금(金)이 되고, 공망(空亡)이면서 병지에 의해 상합되었는데, 금이 공망이면 소리가 나며, 목소리를 주하고, 합은 반주(絀住)이니, 그녀의 목청이 좋지 않아 말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설명한다.

실제 상황: 이 여성은 자궁부속기염이 있고 호흡기가 좋지 않았다. 매달 일정 기간이 되면 정신이 갑자기 크게 피로하고 쇠약해지며,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제자 사례(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王渊Yzfs: 喉咙发不出声音

寅月乙亥日，某女预测疾病，得天地否。

玄武 父母戌土'应
白虎 兄弟申金'
螣蛇 官鬼午火'
勾陈 妻财卯木"世
朱雀 官鬼巳火"
青龙 父母未土"

断：以世爻为用神，世得月扶日生为旺相，卦中没有忌神发动，好像没有毛病，但细看此卦，二爻官鬼巳火暗动，为世爻病地，同时暗动之爻又与五爻兄弟申金相合，这个就是玄机。

卦名天地否，为上下不通之象，说明她身体不好，经络不是很畅通。二爻为生殖器的爻位，官鬼在此暗动，妇科方面必有毛病，临朱雀，主炎症，我断其有附件炎。五爻为金，空而被病地相合，金空则鸣，主声音，合为绊住，说明她嗓子不好，影响说话。

实际情况：此女有附件炎，呼吸道不好。每个月都有一段精神会突然萎靡不振，喉咙发不出声音。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용(인스타: sangjun2495) (용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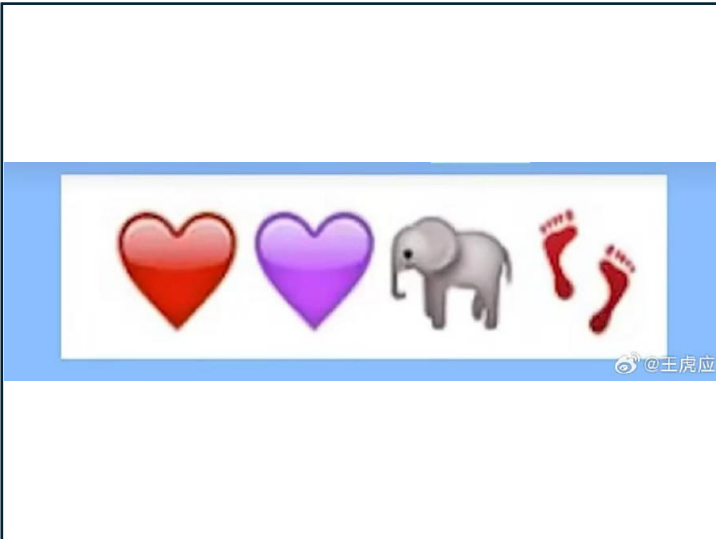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